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9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**유럽의원(MEP), 분산된 신임 집행위원 포트폴리오에 우려 표명(9.19)**
 - 집행위의 발표에 따르면 6명의 부집행위원장 중 4명이 교육, 과학, 기술을 담당하며, 스타트업·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 외에도 보건, 기후, 국방 분야의 다른 세 집행위원도 연구혁신을 임무에 포함하는 등 혁신, 기술, 산업 분야가 여러 집행위원들의 임무에 걸쳐 있음
 - ※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경직된 권한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, 안전, 경제, 기후 및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모두 사람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
 - 유럽의회 Tobbacq 의원은 혁신과 산업 분야에 대한 강한 집중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한편, 중복의 위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, Ehler 의원은 경쟁력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조정과 전략적 지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
 - 일부 의원들은 새 집행위원들의 임무 서한에 EU 경쟁력 기금이 언급된 것을 2028년에 시작되는 다음 EU 예산 주기에 맞춰 호라이즌 유럽 차기 프로그램을 경쟁력 기금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음
 - Ehler 의원은 이러한 통합이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유럽연결 프로젝트(CEF) 등 중요한 EU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
- **집행위,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대규모 컨퍼런스 개최(9.18~19)**
 - 약 700명의 참가자가 온·오프라인으로 세션과 토론에 참여, ERA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논의, 특히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연구경력, 연구 인프라, 오픈사이언스 등 3개 분야에서 ERA가 지난 4년간 이룬 성과를 강조
- **집행위, OECD와 연구혁신 경력 관측소(ReICO) 출범(9.19)**
 -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혁신경력관측소(ReICO)는 2025년 상반기부터 정책입안자들이 연구 경력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
- (기타) ▲G20, 개방형 혁신 전략 및 포용적인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권고인에 합의(9.20) ▲집행위, 유럽특허청과 지식 가치화 및 지적 자산 관리 분야 협력 강화 합의(9.20) ▲집행위, HE 유러피안 파트너십에 관한 두 번째 성과 보고서 발간(9.19) ▲집행위, EU R&I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(9.19) ▲Chips JU, 양자 칩 관련 6,500만 유로 규모 공고 개시(9.24)[공고, 공고2] ▲EU 연구, 공공 부문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적 AI 도입 촉구(9.23)